



[뉴스]
 ‘국민’ 분위기 막걸리
 쌀값 인상에
 가격 인상 우려
 02

애플카 Made by 기아차? 성사땐 미래차 판도 흔든다

애플 전문 애널리스트 보고서
 기아 ‘생산’, 모비스 ‘부품’ 등
 현대차그룹과 생산 협업 전망

기아 CEO 인베스터데이 관심
 애플과 전략적 제휴 공개 주목

애플이 첫 번째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 출시를 위해 현대차그룹과 협력 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기아가 오는 9일 진행하는 CEO 인베스터데이에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아는 지난달 27일 실적 발표와 IR이 끝났음에도 NDR을 진행하지 않아 업계 궁금증을 증폭 시켰다.

당시 기아는 IR에서 전기차 관련 질문에 대해 “인베스터데이에 설명하겠다”고 정리했다. 기아가 NDR을 포기 할 만큼 공들이는 올해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애플과의 전략적 제휴 관계를 공개할지 주목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애플이 기아에 4조원 가량 투자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3일 애플 애널리스트 TF 증권 애널리스트 밍치 쿠오가 공개한 투자자 보고서에 따르면 애플이 애플카 첫 모델 생산 때 현대자동차그룹과 협업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밍치 쿠오는 첫 번째 애플카는 현대차그룹이 자체 개발한 전기차 플랫폼 E-GMP를 기반으로 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애플이 첫 번째 애플카를 출시한 이후에는 제너럴모터스(GM)나 유럽 PSA와 제휴해 후속 모델 작업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지난 12 월에 발표된 현대차의 E-GMP는 차세대 전기차 라인업의 뼈대가 되는 기술집약적 신규 플랫폼이다. 완전 충전 시 500km 이상의 범위를 제공 할 수 있는 배터리를 갖추고 고속충전 기술을 사용해 18분 이내에 최대 80%까지 충전 할 수 있

다. E-GMP 기반의 고성능 모델의 최고 속도는 약 257km, 3.5초 이내에 시속 0km에서 9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밍치 쿠오는 “광범위한 개발, 생산 및 검증 경험을 보유한 현재 자동차 제조업체(현대차그룹, GM, PSA)와 애플의 긴밀한 협력은 애플카 개발 시간을 크게 단축시키고, 제품 개발 이후 시장 출시까지의 기간을 단축시킬 것”이라며 “애플이 현재 자동차 제조사들의 지원을 활용하고, 자율주행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반도체, 배터리 기술, 폼 팩터 및 내부 공간 디자인, 혁신적인 사용자 경험 등 애플의 기준에 맞는 시스템을 통합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밍치 쿠오는 애플카 부품 생산은 현대모비스가 담당하며, 기아가 미국 생산라인을 통해 차량 생산에 돌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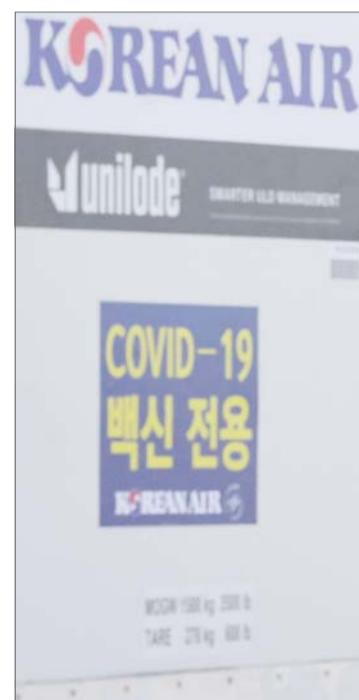
이같은 양상의 협력이 현실화 될 경우 현대차그룹은 미래차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플랫폼과 애플의 자율주행 기술이 어우러질 경우 애플카 뿐만 아니라 현대차그룹의 전기차도 뛰어난 상품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기아 관계자는 “지난달 공시 이후 추가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8일 현대차그룹은 공시를 통해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 공동개발 협력요청을 받고 있으나 초기 단계로 결정된 바 없다”며 애플과의 협력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文대통령, 코로나19백신 수송훈련 참관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화물터미널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수송 모의훈련에서 백신 수송 과정에 대한 참관을 하고 있다.

/뉴스

역세권 확대 개발, 신규택지 지정 가능성

변창흠號 부동산 특단대책 임박

새해에도 집값과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발표할 대규모 주택공급대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신년사에서 “정부는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 마련을 하려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까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예고한 만큼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에 거는 국민의 기대도 크다.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고밀 개발 예고

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빠르면 이번주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단 조율 작업이 순탄치 않을 경우 발표 시점이 다음 주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

후 25번째. 변창흠 국토부 장관으로서는 취임 이후 내놓는 첫 번째 대책이 되는 셈이다. 변 장관은 앞서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고밀 개발을 예고했다. 이 안들은 이번 대책을 통해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변 장관은 지난달 27일 메트로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전체 주택 공급량 역시 아직은 미정이며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년사에선 새해 집값과 전·월세 문제에 대한 국민의 근심을 덜겠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

향후 발표될 주택공급대책에는 지하철역 주변 등 현재 350m인 역세권의 범위를 반경 500m로 확대하고, 역세권의 용적률도 높여 주택을 밀도 있게 개발하는 방식이 포함될 전망이다.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일조권과 주차장 등 규제를 풀어주는 대신 늘어난 면적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돌리는 방식도

검토되고 있다.

역세권에서 복합개발을 하면서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로 상향할 땐 용적률을 7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높이는 데 일조권 규제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건축법상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최대 2배까지 완화해 고층 주택 공급이 가능해진다.

신규 택지 지정 가능성도 제기된다. 도심 고밀 개발만으로는 대규모 주택 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지역의 신규 택지를 통해 대규모 공급을 병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과거 공급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후보지로 물망에 올랐던 광명·시흥지구의 경우 10만 가구 이상 주택공급이 가능한 택지라는 점에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3면에 계속)

/정연우 기자 yw964@

예능인가 광고인가… MZ세대 눈높이로 소통 강화

유통가는 지금 영상시대

〈中〉 편의점 웹예능 대세

모바일·SNS 익숙한 MZ세대 겨냥 기존 홍보 틀 깨고 예능 자체 제작

편의점 업계가 자체 제작한 웹예능 콘텐츠들이 기존 홍보 영상 틀을 깨고 재미와 다양한 볼거리로 무장해 인기를 끌고 있다.

편의점의 주 이용고객인 MZ세대가

모바일·SNS에 익숙하다보니 편의점 업계는 모바일 동영상 콘텐츠를 십분 활용해 MZ세대를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MZ세대가 활용하는 미디어에 자연스럽게 브랜드를 노출, 고객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 25는 지난달 6일부터 공식 유튜브 채널 ‘GS25 이리오너라’에 개그맨 이용진과 래퍼 뱃사공의 웹예능 ‘못배운 놈들 ep.04’ 편은 현재(2월 3일 기준) 조회수 16만3395회를 기록중이다.

개그맨과 래퍼가 새로운 것을 배워

나가는 동시에 GS25에서 판매하는 다양한 제품을 자연스럽게 알리는 콘텐츠다. 출연자들의 유머감각과 예측불가한 상황 전개가 시청자들의 흥미를 유발한다. 매주 목요일·금요일 업데이트되며, 가장 최근에 공개된 ‘못배운 놈들 ep.04’ 편은 현재(2월 3일 기준) 조회수 16만3395회를 기록중이다. 이밖에 공식 계정에는 GS25의 상품을 활용해 요리와 먹방을 선보이는 ‘우리집 앞에 편의점이 있다(우앞 편)’, ‘편의점 큐레이팅’, ‘삼김이와 친

구들’ ‘GS25X산적TV밥굽남’ 등의 콘텐츠가 업로드되어있다.

GS25 측은 “온라인과 비대면 소비에 익숙한 MZ 세대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CU 역시 세대 간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씨유튜브’에 개그우먼 장도연이 편의점 점주인 예능 ‘도연이네 편의점’을 선보였으며, 이는 구독자들에게 큰 호



씨유티비

/유튜브 화면 캡처

응을 이끌어냈다.

(4면에 계속)

/신원선 기자 tree6834@